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5차 회의 계획

□ 회의 개요

- 개최 목적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국내 논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 푸드시스템이란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의미
- 일시 및 장소 : '21.6.1(화) 14:00~16:00 / 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
- 참석 대상 : 국회(이개호 위원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농특위,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 KREI 등 15명 내외
 - * 5차 회의 전체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및 주관 : 국회(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진행 순서(안)

구성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발제	14:00-14:05	5'	· 축사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
	14:05-14:10	5'	· 축사(영상)	UN FAO 탕 성야오 소장
	14:10-14:15	5'	· 인사 말씀	KREI 원장
사회자 KREI 박성진 박사	14:15-14:25	10'	· UN 푸드시스템 국제 논의 현황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14:25-14:35	10'	·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 현황 : 1~4차 회의 결과 등	영상, KREI 황윤재 박사
	14:35-14:45	10'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소개	농특위 홍근형 팀장
2부 토론 좌장 KREI 원장	14:45-15:55	70'	· 토론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	토론자
	15:55-16:00	5'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KREI 원장

- **(배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 * 푸드시스템: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
 - 코로나19, 기후변화, 국제분쟁으로 인해 '30년까지 기아종식 등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존재
 - UN 사무총장은 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개선방안(pathway)을 논의할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19)
 - * 일시: UN 총회(9.21(화)~27(월)) 계기, 장소: 미국 뉴욕

 - **(UN준비동향)** UN은 정상회의 준비 사무국을 구성하고 SDGs 달성을 위한 5대 실천분야를 제시
 - UN은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위원장 아그네스 칼리바타 (Agnes Kalibata)를 정상회의 특임대사로 임명
 -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 팀과 과학그룹이 각 분야별 논의를 정리하고, 국제기구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자문 역할
- < 5대 실천분야 및 중점행동 >**

 -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 식량안보 증진, 영양가 높은 식량 접근 향상, 안전한 먹거리
 -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선택지 제공, 음식물쓰레기 감축
 - ③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 자연생태계 보호, 기존 식량생산체계 관리, 생태계 복원
 - ④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 푸드시스템 행위자간 균형 조정, 노동자 착취 근절, 푸드시스템 지역화(localize)
 - ⑤ 취약계층·총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 푸드시스템 회복력,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 기후친화적 개혁

※ 범분야: 거버넌스
- 그간의 논의 경과 공유 및 정상회의의 우선순위 과제 설정 등을 위한 사전회의('21.7월)를 준비

□ (의견 수렴) UN은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① 국내논의(National Dialogue):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푸드 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방안을 논의

< 국내논의 가이드라인(UN) >

- 국내논의 원칙으로 다양한 참여자, 표준화된 형식, 명확한 주제, 정량·정성적 결과물 도출을 제시
- 국내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지정하고 주요 관심분야 및 논의 주제를 지정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
- 3단계 논의 권고: (1단계)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현황 파악 → (2단계) 지역별·분야별 세부논의 진행 → (3단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국내논의 결과는 논의 종료 후 2주 내에 UN에 통보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유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 우리나라 포함 104개국이 국내논의 진행 의사를 UN에 밝히고 66개국이 국내논의 진행(4.23일 기준)

② 글로벌논의(Global Dialogue):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무국(케냐 소재)이 타 국제기구와 공동 개최하여 회원국·국제기구·민간 등이 참여

* 주제: 푸드시스템(‘20.12월), 에너지(‘21.1월), 수자원(4월), 청년(5.4.), 해양(5.27.), 자연-지구-사람(6.7.), 도시(6.24.)

③ 독립논의(Independant Dialogue): 개인·단체 누구나 주관하고 논의 결과를 UN에 통보(사무국 홈페이지 게재) 가능

□ (향후 일정) 글로벌 논의 참여(‘20.11~‘21.6) → 국내 논의 진행(‘21.3~6) → 장관급 사전회의(‘21.7, 로마) → 정상회의(‘21.9, 뉴욕)

○ 사전회의(7.19~21) 및 정상회의 시 각국 대표가 국내논의 경과 공유

○ 정상회의 시 UN사무총장이 기존의 다양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030 SDG 달성을 위한 행동선언문을 발표

- (현황) 농특위 국가식량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9월로 예정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1차 국내논의 실시*(21.3.30.)
 - *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UN에서 진행중인 논의를 소개하고, 토론을 실시하여 향후 논의할 주제, 국내 논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반적으로 ① 식량안보,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보장의 크게 3가지로 향후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였음
-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관계 부처에 주제별 논의(2차~4차) 진행 과정에 참석 요청
- (진행 방식)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각 주제별로 2~4차 회의를 실시하여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5차 회의에서 국회와 함께 종합토론 개최
 - * 2차 회의(식량안보, 4.21)→3차(지속가능한 생산·소비, 4.28)→4차(먹거리 보장, 5.7)→5차(종합, 6.1)
- 회의는 크게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 농식품부에서 UN 논의 현황 및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KREI 전문가 주제 하 토론 실시
- (주요 참석자) 생산자단체는 모든 회의에 참여, 이외에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주제를 고려하여 섭외

2차 회의 식량안보	생산자단체(한농연)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학계/연구계(농업경제 교수, 농협경제연구소 등) 산업계(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기구(WFP 한국사무소)
3차 회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생산자단체(한농연, 친농)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학계/연구계(한국정밀농업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정부부처/국제기구(환경부, 농촌진흥청, 군산시, WFP 한국사무소)
4차 회의 먹거리 보장	생산자단체(한농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학계/연구계(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식생활교육국민네트웍) 정부부처/국제기구(교육부, 식약처, WFP 한국사무소)

1. 개요

- (목적) UN 푸드 정상회의(9월)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1.3.30.(화) 14:00~16:20 / 서울 LW컨벤션(유튜브 생중계)
- (참석) KREI, 농식품부, 농특위,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0여명
 - * 주제 : KREI 원장 / 발제 : 정상회의의 의의(UN 자문위원, 영상), 정상회의·국내논의 개요(농식품부), 국가식량계획(농특위), 농업인·소비자 전문가 인식 설문결과(KREI)
 - ** 토론자 : 농축산연합(김광천 사무총장), 한농연(최흥식 수석부회장), 전여농(오순이 정책위원장), 청년농업인연합(강선아 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회장), 농특위 농수산식품 분과(곽금순 위원장), 서울대 임정빈 교수,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 등

2. 주요 논의 사항

- (공통)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① 식량안보, 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③ 먹거리 보장의 3가지로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
 - 다만,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범국민 참여 요청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논의 주제로 바람직 (한농연) 다양한 이해관계자(중앙-지자체-시민사회) 간 포괄적 토론 필요, (농축산연합, 임정빈 교수)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등도 해당 논의 참여 필요
- (식량안보)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농축산연합), 농업 생산인력 확보(청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지확보 및 농산물 공공수급제*(전여농) 등 강조
 - * 쌀·밀·콩·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을 선정하여, 공공비축 실시 및 공공급식에 활용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농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내실화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임정빈 교수), 탈탄소 연착륙을 위한 농업인 지원(농축산연합) 요구
-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및 가구 단위별 맞춤형 식량 보장(임정빈 교수), 100% 먹거리 보장* 및 영양 교육(문은숙 대표) 등 언급
 - * 우리나라 국민 약 10%(500만명)가 먹거리 빈곤층에 해당, 건강 격차 발생(국민건강영양조사)

1. 개요

- (목적) UN 푸드 정상회의(9월)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1.4.21.(수) 14:00~16:00 / 오송 H호텔 세종시티
- (참석) KREI, 농식품부, WFP,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0여명
 - * 주제 : KREI 기초실장 우병준 / 발제 :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 김경은 서기관
 - ** 토론자 : 식량정책과장 WFP(임형준 소장), 한농연(박진천 실장), 소비자시민모임(윤명 사무총장), 포스코인터내셔널(김재유 그룹장), 농협경제연구소(홍광석 팀장), 고려대 임송수 교수, 충북대 송양훈 교수 등 / 참관 : FAO(이나라 부소장), 농특위(오세영 사무관), 외교부(배성호 연구원) 등

2. 주요 논의 사항

◇ '식량안보'를 주제로 ① 국내 자급기반 확대, ② 위기대응력 강화, ③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론

- (자급기반) 중장기 계획과 농가소득 지원(한농연), 적정 자급률 수준 설정*, 국내 생산과 소비 연계 및 친환경 등 가치소비 중요성(소시모·임송수) 강조
 - * 한정적 국토, 환경 등 여건을 감안,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정 자급률 산출
 - 특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인력(외국인 포함) 확보 중요(임송수 등)
- (위기대응) 국제곡물위기에 대비한 비축 확대(포스코),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ODA 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 연계*(포스코·농협) 필요
 - * 개도국과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되, 비상시 국내로 안정적 곡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조,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현지 농민과 마찰 최소화
- (국제논의)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등 '한국적 경험' 공유*(WFP), 주요 곡물 수출국에 국제곡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 요청(임송수)
 - * 개도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새마을운동 경험을 접목하여 의식개혁, 환경개선, 소득증대 달성
 -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인 만큼, '소농', '취약농', '고령농' 등도 고려(임송수)

1. 개요

- (목적) UN 푸드 정상회의(9월)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1.4.28.(수) 14:00~16:00 / OCC오송컨벤션센터
- (참석) KRE,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군산시, WFP,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 * KRE(정은미 부장), 농식품부(식량정책과장 외 3명), 환경부 농진청·군산시 관계자, 한농연(서용석), 한국친환경농업협회(박중서), 녹색소비자연대(유미화 상임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윤명사무총장), WFP(임형준 소장), 한살림(윤형근 전무이사), 아이쿱(김대훈 센터장), 한국정밀농업연구소(남재작 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자혜 실장), 영남대 박재홍 교수 등 20여 명

2. 주요 논의 사항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주제로 ①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확대, ③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등 토론

- (탄소중립) 음식물 폐기물류 감축(WFP), 농업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대체(한살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탄소저감 인증(축산과학원) 필요성 제기
 - * 아이쿱·정밀농업연구소 등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축산 문제' 해결 강조, 축산과학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환경친화)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생산자단체·군산시), 환경을 고려한 적정생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친환경 소비(소비자단체) 등 강조
 - * 공공수매 및 공공급식 공급연계 확대(친농), 친환경 단지·규모화(군산시) 등
- 생산체계 전환(다품종소량→대량공급 전용 산지), 소비자 지불의사 확보 필요(농진청 등)
- (지속가능성) 농업·농촌 내 '사람*'의 유입 및 먹거리 접근성 제고(시민단체·학계·군산시), 재해보험 강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필요(아이쿱)
 - * 고령화인구구조 고려 필요(정밀농업연구소), 농촌 사회 재건·재활 등 정주여건 마련(아이쿱), 청년농 육성 및 농민기본소득 도입(한살림), 지자체 푸드플랜 운영할 전문 인력 필요(군산시) 등

1. 개요

- (목적) UN 푸드 정상회의(9월)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1.5.7.(금) 14:00~16:00 /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
- (참석) KREI, 농식품부, 교육부, 식약처, WFP, 생산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 * KREI(국승용 부장), 농식품부(식량정책과장 외 3명), 교육부 식약처 사무관, 한농연(서용석), 한국소비자연맹(이향기 부회장),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탁명구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원(배순영 정책연구실장), WFP(오준석 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슬기 부연구위원),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윤혜려 센터장), 충남대 김성훈 교수, 광주교대 방기혁 교수 등 15여 명

2. 주요 논의 사항

◇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제로 ① 먹거리 통합지원, ② 국민 건강·영양 개선,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토론

- (통합지원) 농식품바우처사업 등 확대 및 본사업화* 필요(김성훈·한농연), 해외 원조 확대 및 영양식품지원(김성훈·WFP) 제안
 - * 안정적 농산물 공급 위해 바우처/과일간식/임산부꾸러미 사업 등 지속 필요(한농연)
- 중앙정부와 지자체·NGO 간 협업(김성훈), 먹거리 전문 현장인력 양성(식생활 네트워크·방기혁), 먹거리 공급과 교육 간 연계로 효과 제고(보사연 등) 필요
- (영양개선) 농업·농촌 이해 교육(방기혁·소비자연맹), 영양 불균형* 개선(보사연), IT기술** 활용(WFP·소비자연맹), 지역여건 고려 및 부처간 협조(급식센터) 등 필요
 - * 우리나라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보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
 - ** 현재, 식생활국민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추진중(식약처)
- (안전관리) 소통·참여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안전관리(김성훈, 소비자원), 미생물 위해요소 관리*(소비자연맹, 교육부) 등 강조
 - * 향후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이행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식약처)

1. 추진 방향

- (정의) 국민의 먹거리 관련 국내·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범부처 통합 전략
- (역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반영한 추진 방향 설정 및 교육, 환경, 복지 등 타 계획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

주요 이슈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매년 하락(45.8%, '19) 및 코로나 이후 식량위기 현실화 우려 ▶ 글로벌 식량이슈 대응 필요 및 역할 강화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소비기반 확대·식량 자급능력 제고, 국내·외 위기대응 역량 강화 ② 올바른 식생활을 바탕으로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 지속가능성 제고 ③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국민 생애전주기 먹거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심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추세 ▶ 식생활 트렌드 급변 및 건강관련 지표 개선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섭취 부족 인구 증가 및 불평등·불균형 심화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2. 국가 식량 계획 체계

비전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③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 	
중점 과제	식량안보	(국가) 식량자급력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 (지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국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친환경·탄소감축) 탄소중립·생태 농어업 전환 (먹거리 손실 저감) 음식물류 손실·폐기 감축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먹거리 보장	(영양·건강)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안전한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개선 (공공성 강화) 생애 전 주기,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
추진체계	(통합추진체계)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업·민관 협치 기반 및 법적 근거 마련	

3.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① 식량자급력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

- (식량) 쌀 이외 소비 비중이 큰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 (생산기반) 우량농지 중심으로 보전·활용 강화, 농지 소유·이용 체계 구축
 - (사료)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곡물사료 의존도 축소
- (수산물) TAC(총허용어획량제) 기반 자원관리 정착 및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양식업 디지털화
- (위기대응) 선제적 위기 상황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미래 식량자원(곤충 단백질 등) 기술 개발

1-② 지역단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 (자급기반 확대) 제도적 기반인 지역 푸드플랜 확대 및 내실화, 중소농어가 중심의 수요기반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안정적인 수요처 발굴,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으로 품목 다양화
- (접근성 제고) 친환경·로컬푸드 매장확대와 브랜딩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 직거래 장터·매장 확대 및 수산물 소비확대 방안 마련 등 추진

1-③ 글로벌 식량 위기대응 국제 협력 강화

- 세계 기아인구 감소를 위해 기술협력, 원조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ODA) 수혜국의 농어가 소득 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식량지원) 저개발국 난민·이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 확대
-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으로 곡물 수입 안정화 및 어장 확대

2-① 탄소중립·생태 농어업으로 전환

- (기후변화) 농업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해양수산 탄소중립 기반 마련
 - (농·축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선택형직불제 정착, 양분관리제 도입, 경축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 (수산) 연근해어업간 조업구역 분리, 수역별 어장휴식년 도입 등 추진
- (탄소 흡수기반) 농어업·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net zero) 기반 구축
 - (산림) 숲가꾸기 등 조림수종 갱신, (해양)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확대

2-②

음식물류 손실·폐기 감축

- (생산·수확) 수급 예측 고도화, 어구어법 개선을 통해 산지폐기 최소화
 - 관측정확도 제고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 (유통) 일자 표기방식 개선 및 유통단계 감축을 통한 먹거리 손실 저감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비대면시장 활용으로 유통과정 손실 감소
- (소비) 전 국민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먹거리 손실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교육·홍보·기부활성화 캠페인 등 다각적 노력 병행

2-③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농어업·농어촌 이해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기반 마련
 - (미래세대)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기회 확대, (성인)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추진,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바우처 등) 사업 연계 교육 강화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친환경·로컬푸드 활용 체험 교육 확대

3-①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 지원대상별 기존 지원사업 개편·확대와 영양소 관리 강화
 - (어린이) 초등 돌봄교실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확대, (청소년) 교육·홍보 강화로 식습관 개선, (노년층)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 식생활·영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건강 정보 제공 추진
 - 영양 표시 의무대상 확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화 유도

3-②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 개선

- 농·축·수산물 위해요인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생산 환경 조성
 - 농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및 축·수산물 PLS 단계적 도입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위생 취약요인 개선
 - 온라인 유통 위생점검 강화, 배달음식 위생 정보 확대 제공 및 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사전검사, 축산물 HACCP 확대, 수산물 위판장 개선 추진
- 위해우려 수입 농수산물 집중 관리 강화
 - 수입농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및 해외직구·수입품목 성분검사 확대
- 추적관리, 집단발병 감시체계 구축 등 신속대응 역량 강화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확대
 - 농식품바우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본사업화 추진
 - 영양플러스 사업에 건강한 지역 농축수산물 제공 및 운영방식 개선
 - 바우처 중심의 먹거리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편
- 친환경·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공공급식 품질 및 관리체계 개선
 - 학교급식에 친환경·지역농산물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식재료 관리 추진
-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 생활형 SOC 정책, 로컬푸드 매장 등을 활용하여 거점공동조리장을 설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사업 추진

4.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식량 계획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5. 향후 추진 계획

* 제8차 농특위 본위원회 의결

- (홍보) 일간지·전문지 등에 전문가 릴레이 기고, 온라인 좌담회(또는 지역별 오프라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 제고
 - 주요 사업(과일간식, 바우처, 꾸러미 등)의 추진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
- (구체화) 농특위 활동을 통해 식량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처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과제 추진의 실행력 확보
 - 분과위를 통해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 강화 방안 마련
 - 식량주권 특위를 구성하여 식량안보 분야 과제를 구체화·공론화
 - * 주요 농식품(밀, 콩, 김치) 자급률 제고, 적정생산 농지 확보 등
- (추가 보완) 부처 협의과정 등에서 미반영 된 내용 등은 범부처 협의회 운영 및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 발굴·보완
 - * 음식물류 폐기 절감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방안 마련(환경부),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기 구성된 표시제 개선협의체에 참여(식약처) 등
- (국제) UN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등과 국가 식량 계획 연관 의제 발굴 등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붙임8

우리부 국가 식량 계획 추진 방향(안)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목표

- ◆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 밀·콩 자급률(%) : ('19) 0.7/26.7→ ('25) 5.0/33.0
-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 ('18) 20.1→ ('25) 19.0
- ◆ **안전한 먹거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 맞춤형 먹거리 지원 대상(만명) : ('20) 1.8→ ('25) 210

1. 식량 안보 강화

안정적 식량 공급	밀·콩 산업 육성 등 자급기반 확충, 수급 관리를 통한 원예작물·축산물·수산물 안정 공급
자급 기반 유지	농지 관리 강화, 시설 이용 효율화, 농어업인력 유치·중개·육성 등 생산요소 유지
위기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매뉴얼 개선 등 대응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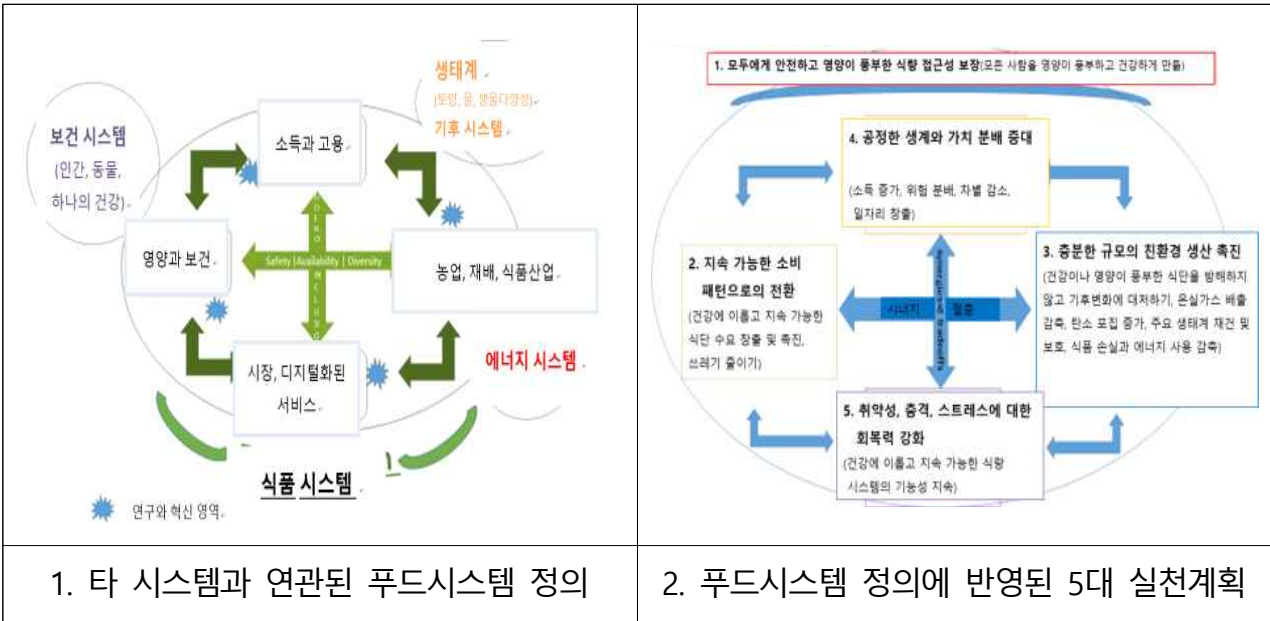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저투입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친환경 농수산업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축 등 환경 부담 완화
지역 내 생산 -소비 체계 구축	지역 내 생산과 소비·급식·가공·외식산업을 연계하는 지역 푸드플랜 제도화·확산

3. 먹거리 접근성 보장

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등 대상 맞춤형 먹거리 통합지원으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국민 건강 ·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나트륨·당류 저감 등 영양 관리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확대, 생산환경 위생 관리, 수입농식품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추진 기반

법적 근거 + 기본 계획 + 민관협업체 운영



□ 푸드시스템의 포괄적 정의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산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생산, 집하, 가공, 유통, 소비, 처리와 관련된 부가가치 활동과 이들이 속해 있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사회, 자연환경을 포괄

- (생산) 농업(축산, 임업, 수산업 포함)과 식품산업의 생산
 - 생산주체인 농촌 및 생산이전의 비료·종자 등 투입산업 등 포함
- (식량안보) 미래세대에게 식량 안보와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적 기반이 저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
- (기후변화) UN 2030 목표와 기후중립 및 SDGs 달성을 반영
- (바이오에너지산업) 순환 바이오 경제* 개념도 포함
 - *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에너지, △생산 및 식품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완화

- (의의) UN은 '16~'30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비전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정('15.9월)
 -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will be left behind)' 포용적 성장 추구

< UN SDGs 17개 목표 >	
1. 빈곤 퇴치	10. 불평등 해소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11. 지속가능 도시 구축
3. 보건 증진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1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7. 에너지 보급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

- (농식품분야) FAO는 5대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2, 5, 6, 12, 14, 15번 목표를 관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을 지원

* ①기아, 식량불안, 영양불량 퇴치에 기여, ②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림수산 분야 생산증대 및 서비스 개선, ③농촌 빈곤 감축, ④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시스템 마련, ⑤각종 위기에 대한 생계 복원력 향상

- 식량·농업 분야 데이터 수집·가공, 정책 조언, 사업 수행, 타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와 협력관계 구축 등 시행

< 농식품분야 관련 SDG별 주요 세부목표 >
○ (2. 기아종식,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 발전) '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연중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 보장 등
○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여성에게 법에 따른 토지·금융 등 경제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부여
○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30년까지 물 소비 효율성 개선, 지속가능한 담수 공급 보장으로 물부족 인구 감축
○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 '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반감하고 수확후 손실 등 식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손실 경감
○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소규모어업인들에게 해양자원·시장접근성 보장 등
○ (1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산림황폐화 방지·산림복원 등

1]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 (배경) 무역, 도시화, 빈곤 등으로 기아,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는 반면, 글로벌 식량생산의 3분의 1은 식량손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짐
 - 이에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물, 비료 등의 1/4가 낭비되고 농업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차지, 토지 황폐화, 물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촉진
- (논의사항) △정책, 연구, 모니터링, 평가의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 △토양탄소격리 및 농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적용, △식품손실·음식물 쓰레기 감축, △영양과다·결핍을 조절하는 식생활 변화 주도 등 기아종식,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일반인 접근보장 등 논의

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 (배경) 식품은 환경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 가뭄-홍수 증가 등 주요 기상 이변의 가장 큰 희생양이며, 환경복원에 활용가능한 최선의 도구임
 - 이에 현재 식품 소비 패턴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변해야함
- (논의사항) △공공조달, 물류·유통 등 식품공급망, △식품성분 조정, 1인분 용량 변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디자인 포장용기 전환, △도시-농촌의 연계 강화 등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3]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 (친환경적 식품생산 토대) △식품생산을 위한 과도한 토지전용으로부터 자연 생태계 보호, △기존 식품생산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훼손된 환경을 복원, 회복, △토지 일부를 보존을 위해 남김

- (논의사항) △지역단위 생산, 도시농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농가, 농업전문가, 학계 등 지식개발 참여·강화, △천연비료, 식물 보호제, 질소고정생물 등 친환경 식품생산에 대한 지식·혁신 활성화, △참여자 인증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참여 보증제도 (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등 농촌지역의 권한 부여와 농가간 협력 도모, △사회적 기업·공정무역·협동조합 등에 대한 순환/연대경제 등과의 시너지 효과 확대 △친환경 식품생산의 마케팅, 가공시설 개선 등 논의

4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 (배경) 가정,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에 만연한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이 푸드시스템의 빈곤 경감, 평등한 생계를 달성하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음
- (논의사항) 평등한 고용기회, 농촌 여성 농업인·소수민족 등 푸드시스템상 힘없는 소수자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등 논의

5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푸드시스템 복원력 증진

- (배경) 푸드시스템 내 모두가 불안정에 대비·참여하고 재난·위기시 모두에게 식량안보, 영양, 평등한 생계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경지, 관개, 비료 등 투입요소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산업들과의 토지, 물, 노동력 등 천연자원 사용에 있어 경쟁관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논의사항) △지역차원에서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 19, 가뭄 등 재해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위험평가, 준비 등 리스크 공유 매커니즘 개발, △공공, 민간, 생산자 파트너십(4P, public-private-producers-partnership)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평등 증진,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푸드뱅크, 긴급식량창고, 영양공급을 위한 현금지원) 등 논의